

사군자의 디자인모티브를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하 윤 경 · 김 혜 경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 의상디자인과 조교수

Fashion illustration by utilizing Four gentlemanly plants motive

Yoon Kyoung Ha · Prof. Hye Kyoung Kim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1. 10. 30 토)

ABSTRACT

The culture and society environment plays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Fashion and now in the 21st century, interest in Fashion is getting increased along with the rapid progress of advanced media development and information surge.

Now it's the time to extend visual efficiency not only transmitting fashion image but also develop a creative product that satisfy the demander's needs.

Currently it is very hard to express our subjective Korean "nationalism" in the Fashion since the various expression skill using western fashion illustration are dominant in our society.

I have classified two components, fashion illustration and Korean painting in the theoretical circumstance.

In fashion illustration circumstance, I examined the concept, usage, expression skill and history referring to historical documents.

In Korean painting section, I considered coloring portrait concept, pattern, history, concept, and feature of the four gentlemanly plants, including the basic material of Korean-paper, Writing-Brush, Ink-Stone, Traditional-ink and also the history of itself.

I have designed 8 products applying the concept of plum blossoms, orchids, chrysanthemums and bamboos that represen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four gentlemanly plants, and also the expression skill of Korean coloring portrait.

I. 서 론

21세기의 문화는 첨단화 된 미디어의 발달과 정보화의 물결로 급진적인 진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패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패션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패션의 주요한 표현수단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영역도 확대되어 이제는 패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 대중에게 어필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예술작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한 표현기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기준의 서구화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안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사군자를 주제로 디자인 한 의상을 도입하여 전통적이면서도 서구적인 문호에 젖어 있는 대중들과 교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표현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먼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 배경으로 분류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헌을 통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과 역사 및 표현기법을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화의 주제로 사군자의 개념과 특징, 역사 그리고 사군자의 표현재료인 지필연묵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동양화 풍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국내의 문헌과 팜플렛을 통해 분석하였다.

작품은 총 8작품으로 작품의 모티브는 한국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대표할 만한 사군자를 택하여 매(梅), 란(蘭), 국(菊), 죽(竹)을 모티브로 영감을 얻어 이를 의상에 도입시켜 디자인 한 후 한국 채색 인물화의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II.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 및 시대적 고찰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

라틴어로 '만드는 것', '행위', '활동' 등을 뜻하는 Facto를 어원으로 하는 패션(Fashion)의 사전적 의미는 '유행', '상류사회', '방법', '양식', '스타일', '형성하다', '만들다', '유행하다'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 의미에서는 의상과 동일한 표현으로 쓰여진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어원은 "To make light"로 보이지 않는 대상에 빛을 비추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즉, 감정이나 사상을 시각화하여 대중에게 설명한다는 의미로서 도형, 도표, 삽화, 컷, 만화, 사진 등 내용의 전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적 설명 기능이나 단순히 장식적 기능을 갖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장점은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작가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외에도 작가의 개성이나 경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 행위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미술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제시하거나 해답을 주고 독자들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며 또는 상상의 폭을 더욱 넓혀주어 흥미를 유발시켜 준다는 데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넓은 의미에서는 복식의 단순한 도해에서 패션 이미지를 나타낸 고도의 예술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복식 전달을 위한 일체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패션 이미지를 강조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미지 중심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현대에 와서 다각도로 발전되어 대중간의 단순한 의상 정보와 선전 광고를 위한 전달로부터 순수한 의상의 감각을 예술적 측면에서 전달하는 기능까지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록성이라는 시대상을 표현하는 기능과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 지적 도해성이라는 문자나

선의 위치나 방향 등 공간적 조형 수단에 색채의 기능, 데코레이션 도안 등을 구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보는 이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기능, 패션 착오의 폭을 넓혀주는 패션 창조의 영감 원으로서의 기능, 보는 이로 하여금 유능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에 의해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적 직관력으로 접근하게끔 유도하는 예술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패션이 복식 외에 음악이나 미술, 건축, 문화,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듯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매개체로 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한 예술 작품으로서 많은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세기의 대중문화의 발달로 인해 하나의 주체적인 장르가 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중시각 매체의 영향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대중을 설득하면서 수동적인 개념에서 능동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대중들과 교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오늘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연계되어 변화하고 있고 예술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조형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컴퓨터 작업을 이용한 방법이나 그에 반해 요즈음의 Fashion Trend인 Zen과 같이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킨 작업을 많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재와 기법, 재료 등이 이용되고 있다.

2.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시대적 고찰

19세기 말엽부터 모드지와 패션 광고물에 사진이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사실적인 재현이 사진과 경쟁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자 20세기 이후 이미지 표현을 위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1890년대 이전 사실로서의 재현적 시기인 도입기와 이미지로서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전성기 및 변화기와 침체기, 회복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입기 (1890년대 이전)

인간은 동굴에 벽화를 그린 이후로 자신의 의상을 표현하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왔다.

15세기 말 동판화의 발명과 인쇄기의 도입에 따라 패션 잡지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고, 17세기 중반 호라(Wenceslaus Hollar)의 작품이 대표적인 예로 예술의 기술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상과 직물의 질감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그의 작품은 장래 모드지의 예언보다는 교육적, 오락적 호기심의 만족이 중심이 되었다.

복식 전달의 뚜렷한 목적을 지닌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효시는 '르 메르퓌르 갈랑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17세기 프랑스 궁전에서 모드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욕구가 팽배해지자 1672-1715년 동안에 반년마다 간행되어 유행 정보를 보급하였다.

메르퓌르 갈랑지 보급 이후 1768년 '쥬르날 뒤후(Journal du Gout)지'를 선두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정보전달 창구의 역할을 확립하여 19세기에는 모드지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복식판화의 가장 큰 특징인 복제성으로 인해 변화나 전이의 파동 파악이 쉽고 패션 잡지의 생성과 발전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판화 인쇄술의 발달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역시 패션 잡지와 함께 성장하였다.

18세기까지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예술성보다는 주름, 절개선, 직물, 디테일 등 복식의 조형요소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사실적인 재현에 그쳤지만 그 이후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근원이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전성기 (1890년대 -1950년대)

19세기 말엽부터 사진이 모드지와 패션 광고물에 도입되면서부터 사실적인 묘사를 주로 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에 한계가 오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미지 표현에 중점을 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출현하게 되었다.

폴 푸와레(Paul Poiret, 1879-1944)는 1908과 1911년에 그의 작품을 일러스트레이터인 폴 이리브(Paul Iribe, 1883-1935)와 르 빠쁘(George Lepape, 1887-1971)에게 의뢰하여 작품집을 발간, 작가의

개성과 독창성이 개입되어 진부했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많은 예술가들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패션 잡지의 성장과 함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더욱 발전되었고 1910-1920년대는 야수파(Fauvism)와 입체파(Cubism), 아르데코 양식의 영향으로 기법이나 표현양식이 다양해져서 야수파의 색채이론이 밝고 화려한 분위기로, 입체파의 형태이론이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으로 그래픽적인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특히 1910년에는 동양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세련미를 추구한 아르뉴보(Art Nouveau) 양식의 잔재가 정교하고 신비한 이미지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반영되었다.

1920년대에는 입체파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조형 운동이 산업 디자인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곡선에서 직선의 간결한 이미지로 전환되고 평면적으로 처리된 중간 톤의 판화가 미묘한 효과로 정통 아르데코 양식의 완숙한 경지를 보여준다.

1930-1940년대에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본격적인 직종이 등장하였고 수많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들이 등장하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패션은 직선적인 실루엣에서 부드럽고 자유로이 흐르는 듯한 여성적인 실루엣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실루엣은 그래픽적인 이미지에서 회화적 이미지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통회화의 바탕 위에 표현주의(Expressionism) 특유의 붓 놀림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선을 구사하였다.

1950년대에는 1930년대와 1940년대의 화풍을 기반으로 단순화하여 절제되고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였고 생략된 배경처리와 단순한 색면 처리를 하였고 붓, 펜, 콘테에 의한 크로키, 석판화, 과슈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시기에 이르러 일러스트레이션 잡지들은 영화나 TV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침체기에 이르렀다.

(3)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기와 침체기 (1960년대 - 1977년)

1960년대에 돌입하면서 대중미술인 팝아트(Pop Art)의 영향으로 기존의 상에서 탈피한 영 패션의 주류를 이루고 급속, 비닐, 유리, 종이 등의 새로운 소재로 시도되었다.

표현방법과 화면구성에 있어서도 전통에서 탈피해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해마다 구사하는 색이나 느낌을 달리 하였다.

한편, 60년대부터는 사진이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1970년대까지 보그지에 꾸준히 게재되었으나 1976년까지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4)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회복기 (1977년-현재)

1977년이 되면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다시 조금씩 보그지에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수요의 증가와 사진에서 오는 사실주의에서 느낄 수 없는 상상과 창의와 스타일 감각으로 대단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1980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에 의한 새로운 해석과 표현양식의 변화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양식은 각 시대 미술 사조를 반영해왔는데 인체 표현에 있어서 만큼은 복식의 이름다움을 고조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전통미의 개념을 탈피하지 않았고 20세기 미술가들이 자의대로 인체를 분해, 왜곡, 재구성했을 때에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만큼은 예외였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평면적이며 그래픽적인 과장된 형태로 변화되어 미의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에 오면서 표기법에 의한 다양한 변화로 인해 패인팅 기법 외에 폴라쥬, 에어브러쉬, 사현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의 합성기법, C.A.D(Computer Aided Design) 등을 도입과 입체효과를 표현하는 다양한 부조적 표현기법 및 테크놀러지와 미디어 응용등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서양적인 재료와 표현기법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고 여기에 익숙해진 대중들에게 동양적인 요소는 새로운 미의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현재 동양화 기법이나 재료와 소재의 사용 등을 통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한 예술에 우리 순수 전통적인 것, 동양적인 요소들을 첨가시키는 것,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접목 등 다변화 시대에 맞춰 나가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것에 대한 것은 더욱 연구되어질 가치가 있다고 본다.

III. 한국화의 이론적 배경

1. 사군자의 개념 및 시대적 고찰

(1) 사군자의 개념

동양 회화에서의 사군자(四君子)란 매(梅), 난초(蘭), 국화(菊), 대나무(竹)를 말하며 여기서 군자란 재질과 덕(德)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덕은 미덕(美德), 덕풍(德風), 지덕(志德)을 총칭하는 말로 덕성과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인격자라 할 수 있다.

사군자는 원래 회화에서 사용한 말이 아니고 춘추전국시대의 맹상군(孟嘗君) 등 덕망을 높이 받기 위해서 부른 것이고 회화에서 이 말이 쓰인 것은 매, 란, 국, 죽이 고결하고 지조 높은 기개가 있다고 하여 네 사람의 이름을 모방한데서 연유한다.

회화에서의 사군자란 이름은 명대의 진계유(陳繼儒)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범상(凡常)한 초목(草木)과 달리 기품이 있고 아의(雅意)를 견지(堅持)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군자와 닮은 덕과 기상이 넘치는 초목, 매, 란, 국, 죽을 군자화(君子花)라고 이름지어 깊이 관조(觀照)하고 표현하며 인간의 도리와 삶의 의미를 다짐하였던 예술이 사군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이 나오기 전부터 사군자 그림은 묵죽(墨竹), 묵매(墨梅), 묵란(墨蘭), 묵국(墨菊)등의 이름으로 그려져 왔으며 처음에는 인물화의 배경이나 화조화의 부분으로 다루어지다가 북송(北宋)대에 이르러 새로운 지식 계층으로 부상된 문인사대부들의 취향과 밀착되어 대나무와 매화를 선두로 독립되었고, 원·명대를 거치면서 문인화의 대표적 화목(畫目)으로 성행하기 시작했

던 것이다.

매, 란, 국, 죽의 순서는 사계절을 표준으로 한 春(東), 夏(南), 秋(西), 冬(北)의 시간적 변역(變易)을 의미하며, 매, 란, 국, 죽의 순서는 노양(老陽), 노음(老陰), 소양(小陽), 소음(少陰)의 공간적 불역(不易)을 의미하는 습화(習畫)의 순서이기도 하다. 즉, 방위와 계절을 하나의 시공으로 일원화시켜 충족될 수 있는 그림이 사군자이다.

사군자 그림은 문인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려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재들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사군자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을 요약해 보면,

매(梅) - 그 향기가 맑고 깨끗한 인품을 나타내고 강건한 줄기와 화사한 꽃은 강하고 고귀한 성질을 상징하며, 이른봄 춤위를 무릅쓰고 가장 먼저 피는 매화의 강건한 특성은 훌륭한 덕성을 지닌 군자의 강인한 절개와 지조 및 세속을 초월한 은일(隱逸)을 상징

난(蘭) - 묵란은 그 은은한 며 향기와 수려한 곡선미와 청초한 분위기를 통해 고결한 이념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난초의 생김새가 한자의 서체와 닮은 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묵란을 사군자 중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묵란화에서 난초의 종류는 춘란(春蘭)에서 초란(草蘭), 독두란(獨頭蘭), 유란(幽蘭)이 있고, 건란(建蘭)은 웅란(雄蘭), 준하란(駿河蘭)으로 나눌 수 있다.

국(菊) - 서리 내리는 늦가을에 인내와 지로를 꽂피우는 국화이 모습은 현세를 외면하고 사는 품위 있는 은둔자의 모습이나 오상고절(傲霜孤節)한 군자를 연상케 한다.

국화는 피는 시기에 따라 추국(秋菊), 하국(夏菊), 한국(寒菊) 등으로 그 빛깔은 수십 가지 색을 띠고 있다.

죽(竹) - 늘 푸른 곧고 강인한 줄기를 가진 대나무는 군자의 정신적 상징, 충신 열사와 열녀의 절개에 비유된다. 기후화 자연적 정경에 따라 청죽(青竹), 앙죽(仰竹), 노죽(露竹), 우죽(雨竹), 설죽(雪竹), 월죽(月竹) 등의 화제로 다루어졌다.

(2) 사군자의 시대적 고찰

사군자를 소재로 한 그림이 출현한 것은 대나무가 가장 이른 것으로 그 기원은 당 때부터였지만 본격적으로 그려진 것은 북송 때 문동(文同 1019-1079)과 소동파(蘇東坡, 1036-1101) 이후였다.

북송의 문인 사대부들에 의해 대나무와 매화를 중심으로 사군자가 그려지던 즈음 고려에서도 사군자가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고려(918-1392)는 도덕과 예의와 같은 유교적 통치 이념을 근본 원리로 삼았고 중앙 집권체제 수립에 방해가 되는 지방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개국 초부터 문치주의를 지향하였다. 북송이나 고려 모두 과거제도 실시로 인해 문인사대부 층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지도층은 문인적, 학자적 성향을 기본속성으로 삼게 되었다.

문인화의 회화 사조가 12세기 고려화단에 전개되면서 김부식에 의해 묵죽(墨竹)을, 정지상이 묵매(墨梅)를 최초로 그린 후 우리나라에서 사군자 그림의 역사 뿐 아니라 문인화 역사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14세기 고려 말 일본 서북사(寺) 소장의 '관경서품변상도(觀經序品變相圖)' 속의 누각 안에 있는 병풀그림의 묵죽과 매애(梅涯)의 '세한삼우(歲寒三友)도' 중의 묵죽에 남겨져 있다. 묵죽의 경우 원대 묵죽 양식이 반영되어 있으나 가는 줄기의 모습 등은 조선 초기 화풍의 선구적 특색을 보여준다. 그리고 매화의 경우 꽃의 성근 형태와 직선 줄기의 간소한 분위기 등도 그 이후 전통의 선구를 이룬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조선 초기(1392 - 약1550)에는 문인 사대부들이 왕조 운영의 주체 세력으로서 문화 창달을 주도해 나갔고 이들 성향과 밀착되어 사군자도 곧바로 계승되어 문인화 뿐 아니라 일반 그림 중에도 대중을 이루며 성장하였다. 조선초기에도 유행에 비해 전하는 유작은 거의 없다시피 하나 조선 전기 화원들이 그린 몇몇 청화백자(靑華白磁)에 시문(施紋)된 대나무 그림에서 고려 말 전통을 계승하여 조선중기로 이어주는 양식적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조선중기(약1550 - 약1700)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전쟁 속에서도 성리학이 심화 발전되고 조선화 되었으며 사군자 또한 매, 란, 국, 죽이 모두

화목으로 갖추어졌다.

실제 작품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군자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선조 연간에 이르러서 였다. 그 동안 업신여기던 청조의 문물을 중화전통의 계승으로 간주하고 조선후기(약1700 ~ 약1800) 문화 부흥을 위해 수용함으로써 회화 전반과 함께 사군자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 때부터 매, 란, 국, 죽을 함께 묶어 사군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조선말기(약1850 - 1910)에 이르러 서는 사군자가 화단의 주류로 떠오를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 이 시기의 사군자는 전 시기의 남종 문인화풍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서예성과 사의성의 강조와 함께 문기(文氣)와 서권(書卷) 기와 같은 이념미가 크게 중시되었다. 그리고 청대의 양주팔괴(揚州八怪)의 참신한 구도와 자유 분방한 봇놀림, 독특한 조형미와 담채의 풍부함을 이용한 새로운 감각의 개성적인 화풍도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말기 회화는 이 시대에 흑립된 남종화풍이 근대 및 현대 화단에 이어져 줄기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제이후에는 기법이나 양식 적인 진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2. 동양화 풍(Oriental)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패션은 외면의 반영 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그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시대의 정신과 사상이나 문화, 예술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동양화 역시 여러 요소들이 함유하는 공통적인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동양화를 응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서양의 표현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동양적인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있다. 또한, 최근에 동양의 표현재료와 동양화 기법을 사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동양적인 느낌의 작품과 동양화의 기법을 응용한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양화 풍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분석에 앞서 동양화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표현 요소의 효과

힘차고 단순한 선의 필력과 변짐으로 인한 우연성과 여백의 미는 서양과 동양적인 표현재료와는 상관없이 동양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특히 동양의 수묵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필묵(筆墨)과 회선(劃線)에 의해 본인의 순간적인 감정과 잠재 의식적인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표현재료와는 상관없이 동양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로 주로 동양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루어 보았다.

① 선(線)

흔히 동양 예술을 선의 예술로 보는 것에서처럼 동양 회화에서 선이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이다.

서양에서는 선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의미와 성격에 변화가 있는 반면 동양화에서의 선은 거의 불변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서양회화에서 선은 이론적으로 정확성과 세밀성을 가지지만 동양회화에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명확성과 세밀성을 표현 하며 극도로 단순화된 간략한 필선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더구나 오늘날의 선은 화면의 기본적인 조형 요소로서 미술적인 원천의 소재로 새롭게 심원(深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은 방향, 굵기, 속도, 그리고 무게의 성질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동양화에서 필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선의 속도와 무게에 의한 것이고 봇으로 그린 필선은 회화 사상 중추를 이루고 있고 최고의 표현수단이 되고 있다.

동양의 선은 도석 인물화나 문인화에서 쓰이는 일필휘지한 선과 채색화에서 사용되어지는 선처럼 묘사에 치중하는 선도 있다.

② 변짐의 우연성

수채화나 동양화에 있어서 물로 인한 변짐은 의

도적인 것이 아닌 순간적인 우연성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특수한 효과이다.

특히 동양화에서 먹의 우연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음양오행 사상에 의하면 묵색(墨色)은 한가지 검은 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을 갖춘 복합색이다. 즉 묵색은 모든 색을 초월한 자연의 색으로 천지만물을 집약하는 색이며 모든 색을 초월하는 자연의 색이라 할 수 있다.

수묵화는 재료적, 방법적인 면에서 보면 물의 흡수가 빠른 화선지에 침투성이 큰 묵이라는 재료를 흡수하여 물의 배분에 따라 하나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수묵의 효과로 자연의 우연성이라는 성질을 지니게 되어 본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게 된다.

이 묵의 우연성은 선과 또한 만나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선을 더욱 부각시키기도 한다.

이 때에 중요한 점은 수묵의 우연성 외에 작가의 의지가 담긴 정신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③ 여백(餘白)의 미(美)

여백이란 화면상에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여운이 감도는 듯한 공백(空白)의 부분, 즉 화외(畫外)의 부분을 말한다.

이 것은 화면을 대부분 꽉 채우는 서양화와 달리 주체가 되는 것만 단적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공간으로 비워 어떻게 보면 미완성처럼 느껴지나 오히려 꽉 채워진 화면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는 듯한 화면이라고 볼 수 있다. 화면의 의식적인 공백은 그려진 형상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려진 부분의 상상의 세계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화에서도 동양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여백의 조형성을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가흔히 '여백의 미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양화에 있어서 이렇듯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여백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친 남용으로 인한 공백이 아닌 중요한 곳에만 운용해야 하고 여백은 여유로움 그 자체로 이미 함축적이고도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의 공간이다.

2) 표현 재료의 효과

선이나 번짐의 우연성, 여백의 미와 같은 표현요소에서 오는 동양화적인 효과 외에 현재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입되고 있는 것은 표현재료로 수묵에서 사용되는 화선지나 먹은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밖에 채색 인물화 기법의 이용으로 수간 채색 등의 동양화 물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폴라주 기법에 한지를 사용하여 동양적인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 디자인 자체에 문양 등의 동양적인 요소들의 도입으로 동양적인 느낌을 가미하기도 한다. 동양화 풍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의 예로 <그림1>는 Belvedere의 작품으로 흑색만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함축된 힘차게 한번에 내려 그은 선으로 동양의 먹선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여백의 미를 느끼도록 화면구성을 하고 있고 일본

의 기모노 의상을 연상시키게 하는 등 본문에서 다루는 동양적인 느낌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그림2>에서는 동양의 수묵 담채화 느낌의 작품들로 선보다는 한 붓으로 연결되어 거칠게 그은 면을 강조하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약간의 채색이 가미되어 있다.

<그림3>은 Ruben Toledo가 기모노를 주제로 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갈필로 굵게 내려그어 한 면으로 의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약간의 문양과 먹선과 같은 줄무늬가 동양적인 느낌을 더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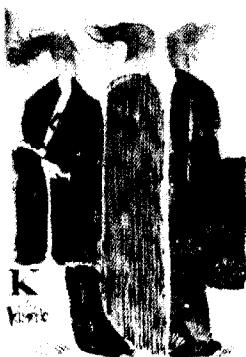
<그림4-5>은 우리 나라 작가들의 작품으로 동양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작품들로서 동양화의 표현재료나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색채의 번짐과 외곽선의 강조, 강한 필력, 다소 생략된 표현, 여백의 미 등으로 동양적인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다.



(그림 1) BELVEDERE,
1992. Fashion Look.



(그림 2) Joe Eula, 1985.
Fashion Illustration Today.



(그림 3)
Ruben Toledo, 1996.



(그림 4) 성광숙 작, 1998.
Treville Co.서정소 작, 1997.



(그림 5)
서정소 작, 1997.



(그림 6)
이주현 작, 1995.



(그림 7)
성광숙 작, 1999.



(그림 8)
송정임 작, 1999.

<그림6>는 한지라는 재료의 사용으로 한지 고유의 따뜻함과 가라앉는 느낌을 잘 살려준다.

<그림7-8>은 먹이나 동양화 물감 등의 적절적인 표현재료를 사용한 작품들로 평상시 동양화 기법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작품이다.

IV. 작품제작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1) 작품제작 의도

독창적인 작품을 위해 작가들은 각기 대중예술 안에서 대중들에게 독창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 시대 감각에 맞추어 많은 표현재료와 기법들을 개발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한 예술 전반의 본질 중의 하나는 창작과정을 통한 작품을 통해 작가의 예술관을 표출해 내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기존의 서구적인 감각이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고자 동양적인 정서를 통한 감정의 표현으로 독창성을 이룰 수가 있다.

회화에 있어서 동양 회화란 선(線)과 색(色)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 지필묵(紙筆墨)에서 오는 필법과 묵의 우연성 등으로 인한 이론적이지 않고 아무런 저항 없는 자연스러움으로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현할 뿐 아니라 색의 맑고 부드러운 조화가 서양의 표현재료와 기법에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을 가져다 준다.

특히 한국화는 덕을 갖춘 선화(禪畫)에서 선이 산만한 모든 생각을 일체 그치게 함과 깊고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과 선가 회화 이념이 정신수양으로 이루어지는 우주무한의 추상미로서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을 모두 내포하는 예술이다.

예술에 있어서 인간의 정서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에 따른 모든 정신적 활동이 가능하다면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작품은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채색 인물화의 기법과 사군자를 주제로 우리 전통미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되 나아가 국제화에

대응하는 데에도 일부 뜻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표현기법에만 치우친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주제를 일관화 하여 동양 사군자인 배, 란, 국, 죽을 가지고 형상 뿐 아니라 고결하고 지조 높은 기품의 표현과 한국적인 느낌을 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의상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사군자의 형태나 문양을 사용하되 실루엣과 인물의 표정 등을 서구적인 느낌을 가미시켜 동·서양의 요소들이 함께 공존 할 수 있게 하였다.

2) 작품제작 방법

작품은 총 8작품으로 표현 재료로는 한지 중에서도 물의 흡수가 좋은 이합지와 동양화 채색 물감(튜브와 수간 채색)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

기법은 전체적으로 수묵의 느낌을 가미한 채색화 기법으로 얇은 느낌의 수묵담채법과 부분적으로 강조할 부분에서 발색이 잘 되는 설채법을 함께 사용하였고 인체부분에서는 선을 먼저 쓰고 채색을 하는 구름법을 의상 부분에서는 채색을 먼저 하고 선을 쓰는 물골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화의 '여백의 미'를 살리기 위하여 배경은 삭제하고 그 대신 그림을 사각형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조형적으로 구성하였고 화면 밖의 공간과도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한지에 작품에 따라 어울리는 색상의 전통문양 비단을 대서 화면을 부각시키고 동양적인 느낌을 가미하였다.

그리고 한지와 조화를 이루는 비단의 색상에 있어서도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비색이 아닌 각각의 주제에 맞도록 매(梅)는 가지의 색상을 따서 갈색 계열로 난(蘭)은 잎의 색상을 따서 녹색계열로 국(菊)은 국화꽃잎의 색상을 따서 황색계열로 죽(竹)은 수목을 강조한 작품으로 수묵의 색상을 따서 청색계열로 선택하였다.

그림들은 주제에 있어 국(菊)은 국화의 둥근 라인을 살려 컷팅 해주고 난초로움을 피하기 위해 비대칭하게 배치하였고 매(梅)는 나뭇가지의 직선을 살려 사선처리 하였고 난(蘭)은 난초의 날렵한 잎을 고려해 사선처리 하되 매와 차이를 두기 위해 반대로 컷팅 해주었다. 그리고 죽(竹)은 대의 느낌을

살려 사각형과 사선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동양적인 작품과 서양적인 요소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형적인 라인을 살려 모던한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2. 작품 및 해설

1) 작품1, 작품2

제목 : 매(梅) 1.2

재료 : 이합지에 채색

크기 : 130 × 45 cm, 130 × 45 cm

사군자 중 매(梅)를 주제로 매화의 가지와 꽃을 함께 조화시켜 디자인한 작품으로 2000년 F/W에 유행된 Prussian Blue와 Chocolate Color를 연상시키는 색감으로 군청(郡青), 대저, 녹엽(綠葉)를 기본색으로 하고 황토(黃土), 호분(胡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다.

구도는 삼각형 구도로 가운데 인물을 부각시켜 뒤의 인물과 원근감이 생기도록 하였다.

의상은 매화의 장인한 나뭇가지를 그대로 도입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가지가 뻗어 가는 모

습과 엮이는 모습, 그리고 장단과 굵기에도 변화를 주었다. 또한 중간 중간에 청초함을 표현하고자 매화꽃을 삽입하였다.

부분적으로 <작품1>의 인물의 치맛자락과 <작품2>의 왼쪽 인물의 바지는 매화꽃이 프린트 된 소재이고 <작품2>의 왼쪽 인물은 한쪽 팔에 나뭇가지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색상 면적이 좁은 부분은 수묵기법을 적용하였고 넓은 부분은 색상의 깊이 감을 주기 위해 채색기법의 설채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프린트 된 매화는 입체감 있게 강조하기 위해 호분을 사용하여 진채로 표현하였다.

2) 작품3, 작품4

제목 : 난(蘭) 1.2

재료 : 이합지에 채색

크기 : 130 × 45 cm, 130 × 45 cm

사군자 중 난(蘭)을 주제로 난의 꽃과 잎을 응용하여 디자인한 작품으로 난의 청초함을 표현하고자 흰색을 주로 하여 한지 그대로의 색에 먹 등으로 농담으로만 표현하였고 색감은 청초함을 부각시키는



(작품1, 작품2)



(작품3, 작품4)

약엽(若葉)과 모단(牡丹)을 주로 사용하여 부분부분 먹을 첨가하였다.

구도는 마름모꼴 구도를 응용하였고 이 작품 역시 한 인물을 부각시켜 원근감이 생기도록 하였다.

난 잎의 가늘고 굵은 느낌과 시각에 따른 다양한 곡선의 형태와 난 꽃을 응용하여 의상에 도입하였다.

전체적으로 의상의 흰 부분은 난 그림에 어울리는 다소 뻣뻣한 느낌의 소재이고 줄무늬로 표현한 부분은 주름진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소재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화면의 네 인물의 성적인 포즈와 동적인 포즈를 함께 조화시키려고 했고 구두와 머리 모양에도 난 잎과 줄기의 형태와 색상을 응용하였다.

3) 작품5, 작품6

제목 : 국(菊) 1.2

재료 : 이합지에 채색

크기 : 130 × 45 cm, 130 × 45 cm

사군자 중 국(菊)을 주제로 부드럽고 반복적이고 율동감 있는 국화 꽃과 잎을 조화시킨 작품으로 풍성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주황(朱黃)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보색인 녹청(綠青)을 기본색으로 사용하고 황토(黃土)와 호분(胡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다.



(작품5, 작품6)

사실적인 국화의 꽃잎을 확대시켜 표현하되 사이사이로 인체가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곡선을 많이 사용하여 율동미를 부각시키고 있고 머리모양도 국화꽃 잎이 꼬여지는 듯한 형태이고 구두도 발목을 따라 국화줄기가 엮어 올라가는 느낌을 주었으며 색상도 동 계열 색상을 응용하였다. 기법 상 색감이 친한 부분에만 설체법을 이용하였으며, 치마는 선의 농담과 담채로 상체의 디자인에 강조를 더해주고 있다.

4) 작품7, 작품8

제목 : 죽(竹)

재료 : 이합지에 채색

크기 : 130 × 45 cm, 130 × 45 cm

사군자 중 죽(竹)을 주제로 대나무의 단단하고 강한 느낌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앞의 여섯 작품과 약간 차별을 두면서 대나무의 강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묵화의 기법에 채색을 가미하는 형식으로 머을 위주로 하고 채색은 군청과 녹초를 약간 가미하여 담채로 표현하였다.

의상은 대나무 안의 공간에 인물이 들어간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대나무를 확대시키기도 하고 장



(작품7, 작품8)

단에도 변화를 주었고 원형 그대로의 대나무 형태와 단면을 자른 형태, 또한 구멍을 내서 끼운 형태 등 다양한 대나무의 형상을 응용하였다.

수묵위주에 채색의 느낌을 더하고 대나무의 흰 부분은 보다 강조시키기 위해 호분으로 덧발라 주었다.

V. 결론 및 제언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함 속에서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는 트렌드의 반영으로 전통적인 것의 시도가 활발해지고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이고도 독자적인 미를 추구하여 기존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방법과 접목시켜 새로운 패션의 미의식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군자는 매(梅), 란(蘭), 국(菊), 죽(竹) 각기 특성에 따른 형태가 의상의 실루엣이나 문양 등으로 인용·활용한 선적인 느낌과 여러 가지 중후한 색상 등이 다양하여 그 요소들을 도입하여 풍부한 디자인을 시도 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 채색 인물화의 표현 기법에 있어서 작가의 감정이 깃든 고유의 먹선과 담채를 통한 우연적인 효과, 반복적인 설채법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작품제작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하나의 스타일을 이루게 되었다.

셋째, 동양화의 표현재료가 한지, 먹과 물의 흡수로 인한 먹선과 발묵의 효과와 수간 채색으로 인한 발색 효과가 다른 표현 재료에 비해 깊이감이 있고 안정되어 서구화 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스타일에 동양의 재료와 기법의 접목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었다.

넷째, 동양화의 '여백의 미'를 도입하여 화면의 공간 구성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었고 비단과 한지의 색상과 질감의 조화와 화면의 서구화 된 라인과의 조화로 인해 조형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로 본인이 연구한 사군자 외에도 우리의 민화라든지 회화의 요소들, 다양한 옛 문양 등을 활용한다면 끊임없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보고 보다 많은 전통과 서구적인 요소의 접목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시도로 우리 나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한 패션분야에 발전 가능성이 생김과 동시에 세계 속에서 독창적인 예술작품으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요소들의 장점을 부각시켜 시대흐름에 맞추어 현대적인 감각과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파스칼. 세계 대 백과 사전. 동서문화사, 1996.
- 꽈영권.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무엇인가. 미술세계, 1985.
- 장앤드류. 일러스트레이션의 이해. 디자인 하우스, 1993.
- 박미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경춘사, 1987.
- 김영숙.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수학사, 1992.
-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 김종태. 동양화론. 일지사, 1978.
- 송수남. 한국화 기법 총서. 예경, 1991.
- 백인산. "선비 정신의 표상 사군자". 월간미술, 2000.
- 박용숙. 한국 미술론. 일지사, 1987.
- 김기주. "동양화의 공간개념 고찰". 시공 8월호.
- Belvedere. Fashion Look.
- Ruben Toledo. Tokyo: Terville Co, 1996.
- 조효정. "관화기법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흥익대학교, 1998.
- 김성애. "사군자를 중심으로 한 서와 화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1987.
- 이은실. "동양화적 감각의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7.